

#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준공식 거행

지난 2002년 개발, 5년여간의 공사 끝에 완공



광양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3단계 1차 부두가 마침내 준공되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은 9월6일(목)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인사, 항만관계자,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 준공식을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남 광양과 인접한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광양항의 국제 경쟁력과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양항 3단계 부두 준공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우리는 21세기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을 목표로 20년전부터 광양에서 대역사를 시작했다”며, 광양항 개발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16개 선석의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 광양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하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에 총 연장 11km에 달하는 34개 선석의 최신 설비의 광양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광양만권 90km<sup>2</sup>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해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추진돼 왔다”면서 “앞으로 광양만권은 물류와 비즈니스, 첨단 생산기능 그리고 교육·의료와 R&D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광양항 개발로 기대되는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광양항은 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 비전의 핵심인 광양항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에 준공된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는 연간 160만TEU(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처리할 수 있는 5만톤급 4개 선석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컨”공단이 지난 2002년 개발을 시작하여 5년여간의 공사 끝에 완공하였다.

이날 준공식 식순은 식전 행사인 풍물패의 신명나는 퓨전놀이예 이어 주빈 기념사, 광양항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하역시범, 주빈의 현장

근무자 격려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준공식은 여타 준공식과는 달리 광양항 물량유치를 위한 선사 간담회, 국제 학술세미나 등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새롭게 연계되어 열렸다.

공단에서는 이날 세계적인 선사이자 광양항 최대 이용고객인 머스크라인(Maersk Line) 아시아·극동지역 본부장, 사토시 이노우에 세계항만

협회(IAPH) 사무총장, Hapag-Lloyd 등 주한외국선사 대표자 협회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1차 부두 개장 기념 학술세미나도 동시에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광양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광양항의 랜드마크 ‘월드마린센터’ 준공식도 이날 함께 개최된다. 월드마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9층 규모로 국제회의장, 해외 바이어를 위한 오피스텔,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 CIQ기관과 해운항만 관련업체, 금융기관 등이 입주하여 항만물류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센터로 광양항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3단계 1차 부두 준공으로 광양항은 5.7km에 달하는 단일 직선 부두길이, 17m의 깊은 수심, 연간 550만 TEU의 처리능력과 16개 컨테이너 선석을 갖춘 초대형급 항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앞으로 광양항은 부두와 배후물류단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동북아는 물론 국제물류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